

만선



국립극단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만선

작 천승세
윤색 윤미현
연출 심재찬

일정 2021년 9월 3일(금) - 9월 19일(일)

장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본 공연은 1964년 국립극장 희곡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같은해 7월 국립극장(현 명동예술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목차

4	작가의 말
5	작가소개
6	연출가 인터뷰
10	줄거리
11	출연진
16	작품이해돕기 <만선> : 토속적 공간과 비극적 의지
22	무대디자인 스케치
23	의상디자인 스케치
24	연습 스케치
26	스태프 프로필
27	만드는 사람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만선>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편물 잘 받았습니다.

정성담긴 손 편지를 읽고 평생 펜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내주신 전단지도 잘 읽었습니다.

64년도 여름 <만선> 전단지를 보고 한참 동안이나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곳 저 곳을 다니며 먹고 살기 바빠 글 쓰느라 바빠 잃어버렸는데

오랜만에 보니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제, 고맙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만선>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손 꼭 잡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선>을 꼭 보고 싶습니다만

이 몸이 성치 못해 극장으로 향하는 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국립극단, 심재찬 연출 선생, 함께하는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

고맙습니다. 모두들 부디 건강하십시오.

2020년 이른 봄

천승세

2020년 11월 7일, 작가 천승세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천승세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점례와 소」가 입선되어 작가로 등단,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물꼬」가 당선되어 희곡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국립극장 현상모집에서 장막극 「만선」이 당선되었고,
이 작품으로 제1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현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간결한 문체와 민중적 언어, 상징적이지만 유려한 이야기 구성을 통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수상

1958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 「점례와 소」
1964	경향신문 신춘문예 희곡 「물꼬」
1965	제1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
1975	만해문학상
1982	제4회 성옥문화상 예술부문대상
1989	제1회 자유문학상 본상 「만선」

주요작품

소설	「황구의 비명」「신궁」「혜자의 눈꽃」 「꿈길밖에 길이 없어」「사계의 후조」
희곡	「물꼬」「만선」「뫼물은 터졌어라우」



진행·정리

김명화

극작가, 공연평론가

결국 다시 만날 운명, 한국적 사실주의 대표작 <만선>

※ 본 인터뷰는 2020년에 진행되었습니다.

김명화 국립극단 70주년작으로 <파우스트>와 <만선>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국립극단에서 여러 번 제작했던 번역극이고 <만선>은 1964년에 국립극장 공모로 당선된 창작극으로, 사실 최근에는 공연이 거의 되지 않았던 작품이죠.

실은 저도 이번에 공연을 처음 봅니다. <만선> 연출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심재찬 한국적 사실주의의 모델과 같은 작품이잖아요, <만선>이나 <산불>은.

내가 사실은 연극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선생님들 밑에서 조연출을 하면서 연출 수업을 받았죠.

이원경, 차범석, 박용기 선생님 등. 그런데 제가 연극 시작했을 때는 또 서구의 다른 연극 개념들이 막 들어올 때라 사실주의 연극에 대한 회의도 들고 중간에 연극 말고 행정 일을 하는 등 피해오다 결국은 '여기'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명화 페르귄트*네요. (웃음)

심재찬 (웃음)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면 왜 이렇게 우왕좌왕 했을까, 그냥 쪽 할 걸. 어쨌든 나로서는 <만선>을 만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운명이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명화 지금은 사실주의 연극을 만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젊은 시절에 사실주의 작업에 주력하셨던 대선배님들의 작업은 어떠셨는지 또 젊은 시절의 선생님은 그 작업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심재찬 행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특히 박용기 선생님. 띄엄띄엄 하는 말들의 사이를 잘 짚어주셨어요. <만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실주의 작품의 특성이 진짜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느낄 듯 말 듯, 보일 듯 말듯이 해요. 그런데 그 분이 그런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잘 짚어주시더라고. 그런데 한참을 보니 모든 작품이 다 똑같아. 사실주의 연극은 너무 전형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도 있었지. 이번에는 안 그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김명화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만선>으로 화제가 돌러졌네요.

과거 사실주의 연극을 고수하셨던 선배 세대로부터 배우기도 하셨고 그 한계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 연출의 콘셉트나 방향성을 듣고 싶습니다.

* 페르귄트(Peer Gynt): 1867년에 입센이 지은 희곡. 몽상을 쫓아 방랑하던 페르귄트가 늙어서 고향에 돌아와 아내인 솔베이의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모두 5막으로 되어 있다.

심재찬

깊이 있는 작품 해석과 사실적인 무대표현을 바탕으로 인간 본위의 모습을 그려내는 연출가. 이원경, 차범석, 임영웅 연출 등 한국 1세대 연출가들의 조연출로 수학하며 많은 경험을 한 후 1991년 극단 전망을 창단하여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연극을 구축해왔다. 연극 <양파>, <잘자요, 엄마>, <바나 아저씨>, <양상블> 등 인간의 심리를 잘 표현한 연극을 선보인 것 뿐 아니라 뮤지컬 <틱!틱!붐!!!>, <유린타운>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연극계에 입문한 이후 약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늘 새로운 변화를 꾀하며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수상

1991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신인연출상
1994 영화연극상
1997 허서연극상
1998 국무총리 표창
2002 올해의 좋은연극 BEST7 선정 <양파>
2003 한국뮤지컬대상 외국베스트뮤지컬작품상 <유린타운>

주요작품

연극 <표류하는 너를 위하여> <물체극-동맥>
<거울 속의 당신> <이런 노래> <여시아문> <양파>
<잘자요, 엄마> <사랑이 온다> <침향>
<바나 아저씨> <양상블> 외

뮤지컬 <틱!틱!붐!!!> <유린타운> 외

연출가 인터뷰

심재찬 그 동안은 곰치의 고집이나 신념이 만든 비극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초래한 비극이라는 걸 강조하려고요. 작품을 읽어보니 곰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뱃놈', 어떻게 보면 예술가적 기질과 맞닿는 사람 같았어요. 줄줄이 바다에서 자식들을 잃는 비극이 곰치의 고집이 만든 비극이 아니라, 불합리한 사회구조가 지켜도 될 만한 고집조차 다 비극으로 귀결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요.

김명화 지난주에 연습을 보았는데 원작의 구조가 조금 다르더군요. 윤미현 작가가 각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생님은 어떤 각색 작업을 요구하셨는지요.

심재찬 원작의 결말이 너무 패배주의적으로 죽어버리니까요. 초연 당시에는 5·16군사정변 이후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을 제대로 못했고 할 수 있는 저항의 표현이 자살이어서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표현하자니 곰치의 집념에 의해 무너지는 한 어촌 가족의 비극으로만 끝날 것 같아 고민이 되었죠. 원작대로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이것은 저항하고 발버둥치는 것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 젊은 세대를 밝게 그리고 싶었죠. 그래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프롤로그는 밝게 그렸어요. 무당이 점괘를 보고 젊은 남녀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원작에서는 이 장면이 중간에 있어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외의 중간 부분은 천승세 선생님의 원작을 거의 지켰다고 봐야겠지. 그 외에는 윤미현 작가에게 원작에서 비극적인 부분들을 약간씩 건어내 달라고, 뉘앙스를 조금씩 바꿔달라고 부탁했어요. 좀 쉽게, 했던 이야기 또 하지 않게.

김명화 그건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심재찬 실은 그게 더 비극적이라고 봐요. 비극이 일상과 그렇게 다른 것일까, 옛날 선생님들은 비극적인 것을 예상하고 작품을 보고 만드셨는데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비극적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는 소소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김명화 한국적 사실주의가 추구했던 비극적 정서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전형적으로 만들었던 무거운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심재찬 그렇죠. 담담하게, 있는 대로 딱 짚어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김명화 저도 예전에 <침향>이란 희곡을 쓸 때 선배들의 희곡을 읽으면서 한국적 사실주의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고민했다면 선생님은 연출 영역에서 고민하시는 거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 작품에서 선생님이 주력하시는 또 다른 연출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심재찬 템포감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어요.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게끔 파도소리나 바람 소리도 멀리서 계속 있는 것처럼 해달라고 스태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암전을 없애겠다, 바로바로 가겠다 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템포감이라는 것이 뭘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막지 않을 수 있다면 암전 없이 그냥 가겠다는 것이죠.

김명화 왜요?

심재찬 과거에 선배들은 그 당시 내가 보기에는 그 상황, 그 장면에 굉장히 주력했어요. 그래서 사실주의 극을 보면 감성적 장면에서 음악을 상당히 깔았던 걸로 기억해요. 간간히 암전도 많았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면 암전을 통해 앞에서 했던 장면을 관객들도 잠깐 쉬면서 생각하고 그 다음 장면을 보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극이 장면에만 열중해서, 예를 들어 클라이맥스까지 간다고 했을 때 관객들과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김명화 그 시절의 관객에게도 템포가 느렸겠네요, 지금은 2020년이니 당연히 동시대 관객과 함께 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희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만선>은 바다가 배경이잖아요, 한국의 사실주의 희곡은

기본적으로 농촌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예외적인 작품입니다. 농촌이 배경인 한국 사실주의 희곡하고는 다른 <만선>의 특징이 있을까요?

심재찬 내가 읽은 바로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선 땅을 지키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대체로 남자들이 소처럼 참고 있거든, 큰 소리 안 내고.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어도 모르는 척 하고. 그 이유는 뭘냐, 땅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만 바다가 배경인 작품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바다로 나간다, 좀 드세지. 곰치를 봐도 개성이 강해요. 뛰어난 뱃놈이죠, 굉장히 고기를 잘 잡는.

김명화 비극적이어도 강인함과 적극성이 있군요. 그런데 바다와 연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식민지 시대 때 서구적 연극 배경이 없다보니까 외국 것을 배워오잖아요, 희곡도 그렇고. 특히 사실주의 연극은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비슷한 역사 때문에 아일랜드 희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심재찬 존 싱의 <바다로 간 기사들> 같은?

김명화 네. <만선>도 바다가 배경이다 보니 그 영향력이 느껴졌어요. 이런 영향력과 한국적 사실주의를 어떻게 연결 지어 볼 수 있을지, 선생님도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요.

심재찬 고민을 하긴 했는데... 한국의 사실주의 연극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항상 아쉬웠던 것이 왜 이렇게 구조가 다 똑같은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애란(아일랜드) 쪽 희곡을 봐도 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 오케이시도 있고 그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따다가 그것을 사실주의 극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그 한을 표현하지 않거나 거칠고, 모든 한은 여자들이 다 안고 있지. 특히 어머니. <만선>의 구포댁을 비롯해서

<달집>도 그렇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역사의 부침이 심해서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내하고 버티는 것이 엄마들이었으니까요.

김명화 농촌을 배경으로 한 희곡과 달리 <만선>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남성적인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모성애와 관련해서는 한국적 한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군요. 이런 한의 정서가 한국적 사실주의 작품을 관통하는 특징이기도 하구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0년에 <만선>을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심재찬 지금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느꼈으면 해요. 여전히 갑질은 횡행하고, 사회는 불합리하고. 그런 면에서 곰치도 예술가적 기질이 느껴진다고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 잘한 건 없지만, 고집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맨 끝에 곰치도 내면의 울부짖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 비극적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우리는 소소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



줄거리

남해의 어느 작은 마을. 바다에 부서(보구치)떼가 그득하다는 소식에
뱃사람 곱치는 자신만만하게 배를 띄운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만선으로 돌아온 곱치.
하지만 기뻐할 새도 없이 잡아들인 부서가 모두 빛으로 넘어가고, 설상가상 선주
임제순은 남은 빛까지 갚지 않으면 절대로 배를 내어줄 수 없다고 단언한다.
가난과 불안에 지친 아내 구포댁은 어부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남편을 설득
하지만, 곱치는 다시 한 번 만선을 장담하며 아들과 함께 거칠어진 바다로 향하는데...

SYNOPSIS

In a small village on Korea's southern coast, fisherman Gomchi learns that the sea is full of white croakers and confidently sets sail. Eventually, he fulfils his long-lasting dream and returns with his boat full of fish. However, his joy does not last long as Lim Je-soon the ship's owner, claims that Gomchi owes him money and takes everything away. To make matters worse, Mr. Lim refuses to lend him a boat until he pays off his debts. Worn out by poverty and anxiety, Gomchi's wife tries to persuade him to quit fishing and start a new life. Yet, Gomchi departs for the sea once again with his son, vowing to catch another boatful of fish.



범쇠

김재건 Kim Jae-kun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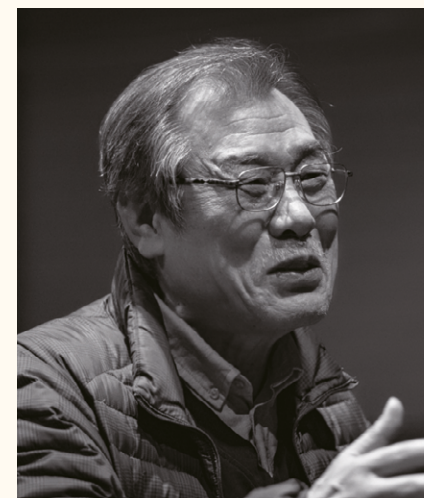
<피고지고 피고지고> 08 | 천축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태> 07 | 세조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사로잡힌 영혼> 91 | 일정도사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외

영화

<악마를 보았다> <집행자> <거룩한 계보> 외

수상

2017 제38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2013 제18회 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2010 대통령문화포장
1992 제24회 백상예술대상 남자연기상
199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1991 사랑의 연극잔치 남자조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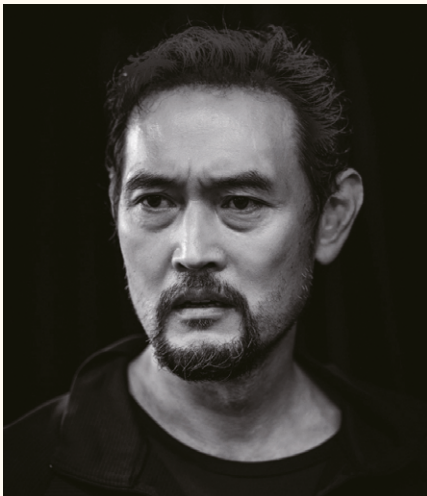


임제순

정상철 Chung Sang-chul

연극

<거룩한 직업> 21 | 도적 | 알과핵 소극장
<아바, 아버지> 20 | 최돌석 | 대학로 극장 동국
<아비> 20 | 의사 | 알과핵 소극장
<세일즈맨의 죽음> 19 | 찰리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청산리에서 광화문까지> 18 | 첫째 |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극장
<언더스터디> 16 | 공작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레미제라블> 13, 11 | 장발장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죽이는 수녀들 이야기> 12 | 할아버지 | 춘천문화예술회관
<쥐뿔> 12 | 메카프 소령 | 대학로 SH아트홀
<보이체크> 11 | 대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곰치

김명수 Kim Myoung-su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19 | 갈릴레이 | 명동예술극장
<바나아저씨> 10 | 바나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밤으로의 긴여로> 09 | 타이런 | 명동예술극장
<시련> 07 | 존 프락터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파우스트> 04 | 파우스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햄릿> 98 | 햄릿 | 국립극장 대극장
외

드라마

<우아한 모녀> <광개토태왕> <대조영> 외

수상

2007 제44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2006 PAF 예술상
1993 제14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구포덱

정경순 Chung Kyoung-soon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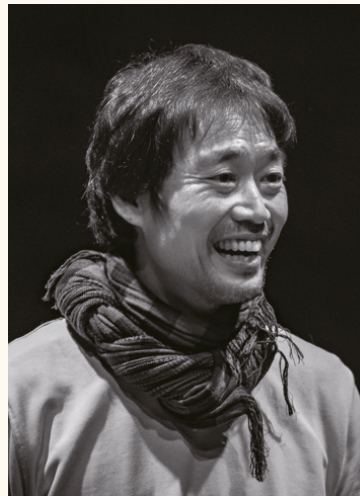
<오피스> 19 | 해롤드 | 아트원씨어터 1관
<급매 행복아파트 천사호> 13 | 영희 | 미마지아트센터 눈빛극장
<사랑을 주세요> 09 | 벨라 | 블랙박스 씨어터
<러브레터> 05 | 멜리사 | 한양레퍼토리 씨어터
외

드라마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러> <상류사회> <병원선> 외

수상

1997 제35회 대중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1997 제18회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1996 제33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1995 제33회 대중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1994 제15회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1992 제28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여자 신인연기상



도삼

이상홍 Lee Sang-hong

연극

<X의 비극>
21 | 박우섭 | 소극장 판
<햄릿>
20 | 클로디어스 | 명동예술극장 (온라인 극장)
<불꽃놀이>
20 | 우영 외 | 소극장 판 (온라인 극장)
<명왕성에서>
19 | 잠수사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가로등이 켜지는 순간>
18 | 김씨 | 예술공간 혜화
<깨끗하고 연약한>
18 | 관장 | 예술공간 서울
<공포>
18 | 안톤체흠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아리아라리>
18 | 도편수 | 아리랑센터 외
<생존도시>
17 | 김사장 | 여행자극장
<승관도>
16 | 강도 갑 | 드림씨어터
외



슬슬이

김예림 Kim Ye-rim

연극

<사랑 II >
21 | 이무기짱 | 백성희장민호극장
<X의 비극>
21 | 윤애리 | 소극장 판
<햄릿>
20 | 길텐스턴 | 명동예술극장 (온라인 극장)
<동양극장 2020>
20 | 오춘심 | 백성희장민호극장 (온라인 극장)
<에쿠우스>
19, 18 | 질 메이슨 |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1관 외
<잃어버린 마을>
19 | 김꽃님 | 충무아트센터 블랙
<브라보마이라이프>
17 | 윤이나 | 상명아트홀
<바보햄릿>
17 | 배우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16-17 | 앙상블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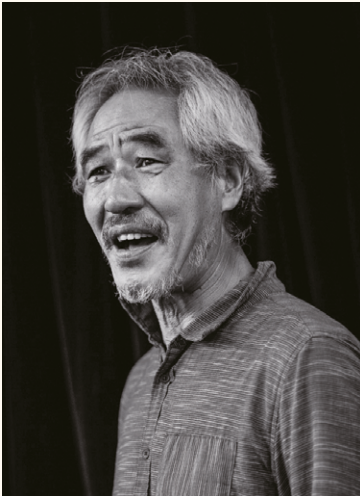
송석근 Song Suk-geun

연극

<스웨트 SWEAT>
20, 21 | 크리스 | 명동예술극장
<X의 비극>
21 | 강명수 | 소극장 판
<햄릿>
20 | 버나도 외 | 명동예술극장 (온라인 극장)
<들꽃찾아>
19 | 독립투사 | 선돌극장
<문신>
17 | 파울 | 연주소극장
<짬뽕>
17 | 백만식 | 신도림 프라임아트홀
<감염>
16 | TV소리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외

뮤지컬

<서울의 달>
16 | 취객 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장담그는 날>
16 | 송대리 | 문화예술전용극장CT



성삼

김종철 Kim Jong-chil

연극

<원로예술인 지원사업>
21 | 김종찬 | 알과핵소극장

<끝 수 없는 불꽃>
19 | 하세가와 |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윤이상: 상처입은 용>
17 | 아버지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고독 청소부>
14 | 김대성 |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

<늪어가는 기술>
12 | 무칠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밤으로의 긴여로>
97 | 아버지 | 산울림소극장

<여시아문>
96 | 죄수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외



마을어부

정나진 Jung Na-jin

연극

<이단자들>
21 | 장백화 | 아트원씨어터 3관

<와이바이>
21 | 용일 | 선돌극장

<답쿠우스>
19, 18 | 다이다이박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고도를 기다리며>
19 | 포조 | 명동예술극장

<이방인>
18 | 레이몽 | 소극장 산울림

<말뚝의 눈물>
18 | 황근석 | 백성희장민호극장

<조치원 해문이>
15 | 남명열 | 백성희장민호극장

<적도 아래의 맥베스>
10 | 박남성 | 명동예술극장

외

드라마

<해치><보이스 시즌2><구암허준><동이>

<화유기><두번째 스무살><뿌리깊은 나무>

<기황후> 외



순경, 마을어부

김명기 Kim Myeong-ki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21, 18, 17, 15 | 신오 | 명동예술극장 외

<X의 비극>
21 | 강현서 | 소극장 판

<스카펄>
20 | 제롱뜨 | 명동예술극장

<이갈리아의 딸들>
19 | 브리또 베르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나는 살인자입니다>
19 | 다역 | 백성희장민호극장 외

<산책하는 침략자>
18 | 쿠루마다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모던타임즈>
18 | 사장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클라우드 나인>
17 | 아내 | 노을소극장

<시대는 서커스의 코끼리를 타고>
17 | 우디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리처드 3세>
17 | 조지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무당, 동네아낙

조주경 Cho Ju-kyoung

연극

<오늘도 무사히> 20 | 엄마 | 예술공간 혜화

<불편한 너와의 사정거리> 20 | 김영실 | 대학로 자유극장

<무지개의 끝> 20 | 엄마 | 노을 소극장

<고향 마을> 18 | 조인숙 | 소극장 공유

<햄릿스캔들> 18 | 거트루트 | 예술공간 오르다

<3월의 눈> 13, 12, 11 | 명서 | 백성희장민호극장

<사랑을 주세요> 02 | 아리 | 창조소극장

외

뮤지컬

<영원한 사랑의 강> 03 | 전주댁 | 노바야 오페라극장

<지하철 1호선> 95 | 곰보할매 외 | 학전소극장

<개똥이> 95 | 거미 외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외



동네아낙

김경숙 Kim Kyoung-suk

연극

<해자> 20 | 여사 | 플랫폼74

<특별한 저녁식사> 18 | 선미 | 한양레퍼토리씨어터

<사우나> 16 | 둘째동서 | 대학로 열린극장

<비트> 15 | 엄마 | 대학로 열린극장

<뽕짝> 15 | 간호사 | 후암씨어터

<별이 빛나는 밤에> 14 | 노가인 외 | 씨어터 송

<허생전> 13 | 번가 처 | 강북문화예술회관

<눈꽃편지> 12 | 어머니 | 예술극장 나무와 물

<30분의7> 11 | 최말녀 | 동양예술극장 2관

<홍어> 10 | 엄마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만선> : 토속적 공간과 비극적 의지

김성희 (연극평론가)



천승세의 <만선>은 1930년대 유치진의 <토막>과 <소>, 함세덕의 <산허구리> <무의도 기행>, 그리고 1960년대 차범석의 <산불>을 잇는 한국 사실주의 희곡의 대표작이다. 1964년 국립극단의 '희곡현상공모'에 당선되어 초연된 이 작품은 '창작극 발굴과 진흥'에 힘썼던 국립극단의 공모작 중 가장 우수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극단은 희곡현상공모를 통해 하유상, 이용찬, 이재현, 전진호, 윤조병, 오태석, 정하연 등 한국 연극의 중추가 되는 극작가들을 발굴해냈다.

목포 출신의 천승세는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점례와 소>가 당선되고, 1964년엔 희곡 <물고>가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그리고 장막극 <만선>이 당선됨으로써 소설과 희곡 양 분야에서 촉망받는 작가가 되었다. 그는 주로 60-70년대 농어촌 민중의 삶, 혹은 도시 변두리 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특히 어촌 어민들의 토속적 삶과 질박한 인간상을 생생한 생활정서와 사투리, 속담 등 토착 언어로 형상화한 탁월한 성취를 보여 주었다. 평론가 염무웅은 천승세의 토속적인 작품이 복고주의나 전원취미가 아닌, "근대문명과 국가 조직의 혜택에서 소외된 민중적 삶의 실감을 포착"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희곡 <만선> 뿐 아니라 중편소설 <낙월도>(1973) <신궁>(1977) 등은 바다와 싸우는 어촌 민중의 토속적 세계를 생동감있게 그리면서도 어민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모순과 그들의 원초적 생명력을 그려냄으로써 현재성을 획득하고 있다. 어촌 마을의 가난, 생계를 위해 배를 타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그린다는 점에서 <만선>은 함세덕의 <산허구리>나 <무의도 기행>과도 소재적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만선>은 가난이나 현실의 질곡에 불평하지 않고 바다와 대결하는 어부의 강인한 의지와 자부심을 생동감있게 그려낸 데 그 차별성이 있다. 때문에 어촌은 소외된 전근대적 공간, 빈공의 표상이라는 진부한 형상에서 벗어나 바다와 대결하는 어부의 원초적 생명력과 긍지가 넘치는 역동적 공간이 된다. 환경이나 상황이 인간의 행동과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물의 의지, 실패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거대한 자연과 맞서 싸우는 비극적 리듬이 강렬하게 주조되어 있는 것이다.

비극적 리듬과 '만선'의 아이러니

<만선>은 '남해안의 조그만 어촌'에서 나흘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긴박감 있게 펼쳐내고 있다. 무대는 몇 해 동안이나 이영을 얻지 않은 낡은 초가, 장대 줄엔 고작 잡생선 몇 마리 널린, 빈궁한 곰치네 집으로 한정되어 있다. 연극은 '만선'임을 알리는 요란한 징소리, 팽과리 소리, 어부들의 함성으로 시작된다. 몇 십년 만에 칠산 바다에 허벅다리만한 부서떼가 몰려왔다. 곰치가 선친으로부터 배운 '부서 땃돌질'이라는 배 부리는 기술로 부서떼의 행로를 막은 덕분에 어부들이 고기를 몇 접씩 잡아 올리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곰치는 자신의 기술과 공을 자랑하고, 자기가 고기를 가장 많이 잡은 어부라는 데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는 앞으로 사나흘 만선을 해서 빚을 모두 청산하고 뚝망배라도 자기 소유의 배를 장만하겠다는 희망을 갖는다. 이처럼 만선의 기쁨과 배를 장만한다는 들뜬 희망, 구포댁의 질편한 입담과 웃음이 자아내던 낙관적 세계는 선주의 등장으로 급격히 반전된다. 선주는 그동안 밀린 배 임대료에 비싼 이자를 매겨 곰치네 어획물을 탈취하고, 나머지 빚도 당장 갚지 않으면 배를 묶어 출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한다. 선주와 함께 온 범쇠는 곰치의 딸 슬슬이를 자기에게 주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한다. 곰치 가족을 얹어매는 이러한 극적 갈등은 당시 어민들이 선주들로부터 당하던 경제적 수탈과 빈곤의 악순환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배가 없는 가난한 어민들은 선주에게 배를 빌려 출어했는데, 높은 배 임대료와 고리대 때문에 빚은 계속 늘어났고, 선주들이 어획물마저 낮은 가격으로 가로채는 바람에 빈곤의 수렁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곰치는 선주가 빚 청산을 요구하며 배를 묶는 바람에 출어하지 못하고, 다른 어부들이 만선을 두 배 세 배 퍼내는 징소리, 팽과리 소리만을 들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다. 다음날 등장한 선주는 배를 풀어주는 대신 다음날 저녁까지 밀린 뱃삿 청산과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엔 가산을 몰수한다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다. 고기잡이에 마음이 급한 곰치는 그 계약에 동의하고 아들 도삼, 딸의 연인 연철과 함께 바다로 나간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쌍돛을 달고 먼 바다로 부서떼를 몰아 만선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는 난파하고 만다. 도삼과 연철은 익사하고 곰치만이 겨우 살아 돌아온다. 도삼까지 아들 넷을 바다에 잃은 구포댁은 실성한다. 갓난애마저 크면 어부로 데리고 나가겠다는 곰치의 말에 그녀는 갓난애를 배에 태워 폭풍우 치는 바다로 보낸다. 딸 슬슬이는 목을 매어 자살하고, 곰치는 갓난애를 구한다고 널찍을 타고 바다로 나간다.

<만선>은 돈의 위력으로 어민을 착취하는 선주나 범쇠 같은 자의 횡포와 '만선'을 성취하려는 어부의 강인한 의지를 대비시키고 있다. 약덕 자본가의 착취와 부도덕이 강력한 갈등구조를 이루며 극행동을 긴장감 있게 추동하고 있지만, 사실 주인공 곰치의 본질적인 갈등 대상은 바다이다. 선주와 곰치 사이의 갈등은 바다와 대결하는 곰치의 대우주적 투쟁을 위한 소우주적 설정이라 볼 수 있다. 이극이 당대 어민들의 삶의 질곡과 생활정서를 치밀하게 재현하고 있으면서도 시대적 특수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획득한 것은 사실성과 상징성의 결합으로 주제의 확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바다는 대대로 어부인 곰치에게 생존의 근원인 동시에 선친, 형제들, 아들들까지 다 잃게 만든 대상이다. 그럼에도 곰치는 뱃사람의 숙명은 바다와 싸우는 것이고, 바다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빚을 다 갚고 나면 뱃일을 그만두고 육지로 나가자는 아내의 말에 곰치는 뱃일을 그만 두느니 배를 갈라 죽고 말겠다고 단언한다. 이는 가난과 생계수단 때문에 뱃일을 하는 여타 어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부 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곰치의 천직 의식을 보여준다. 또 도삼과 연철이 선진국처럼 배에 기계나 레이더를 탑재하고 비행기로 날씨를 탐지하는 어업의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전통적 어업방식을 주장한다. 어부는 눈이 빠지게 바다를 들여다보면서 고기를 잡아야 하고, 바다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 어부의 가치관과 어업방식을 고수하고, “만선이 아니면 노를 잡지 말라”는 조부의 가르침대로 만선에 집착하는 곰치는 이해타산에 밝지 못해 선주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하고 만다. 그러나 그는 계속 “이기고야 말겠다”, “절대 안 져!” 라고 다짐하는데, 이러한 승부욕은 선주의 수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것이다. 어부를 천직으로 여기는 강한 긍지, 거대한 자연과 맞서 싸우는 원초적 생명력, 만선에 대한 집착으로 특징지어지는 곰치의 강렬한 성격창조는 <만선>을 뛰어넘어 어촌극으로 자리매김하는 요소이다. 바다와 싸우다 조부와 부친, 형제들, 자식들을 잃었으면서도 어부의 자존심과 신념, 굴하지 않는 대결의지를 내세우는 곰치는 현실적 제약에 타협하며 나약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소시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 극의 주요한 상징이자 아이러니는 제목이기도 한 ‘만선’이다. 바다와 싸워 이긴 결과인 만선은 풍요의 상징이다. 그러나 부서때가 사태 난 상황에 선주가 배를 묶어 버리자 ‘만선’은 곧 ‘박탈’로 그 의미가 역전되고 만다. 다른 어부들의 만선이 곰치 가족에겐 박탈과 상실을 의미하게 된다. 선주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바다로 나간 곰치는 폭풍우 속에서 만선을 성취했으나 배가 난파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다. 만선에 대한 집착으로 아들과 연철을 잃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선’은 풍요와 박탈의 이중적 의미로 변주되다가 결국 파멸로 귀결되는 비극적 리듬을 만들어낸다. 선친의 비술을 이어받아 쌍돛을 달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질주하는 중선배의 이미지는 거대한 자연이나 운명과 맞서 싸우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비극적 영웅을 연상시킨다.



<만선>에는 강인한 남성성과 집념의 어부로 형상화된 곰치 못지않게 삶의 풍상과 여촌의 토속적 삶의 질감을 표출하는 여성 인물들이 매우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곰치나 구포댁, 슬슬이, 범쇠는 원형적이고 토속적인 어감의 이름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들은 선주 임제순이나 아들 도삼, 어부 성삼, 연철 같은 현실적 인물들과 구별된다. 곰치란 이름은 “복쟁이 새끼 잡아 목음시로 곰곰하는 눈 툇 불 거진 고기” 이름을 딴 것이다. 이 곰치란 물고기의 형상과 습성은 곧 바다와 투쟁하는, 고기잡이에 목숨을 건 어부 곰치를 잘 표상하고 있다. 주막 주인이자 배를 두 척 부리는 범쇠는 그 이름에서 어린 처녀를 노리는 호랑이 같은 속성이 부각된다.

슬슬이는 이름처럼 부드럽고 고운 처녀이다. 그녀는 집안의 빛 때문에 아버지뻘 범쇠에게 팔려갈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그녀는 운명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강인한 면모를 보인다. 범쇠의 겁탈에 저항하고, 연인의 죽음을 알고 난 후 빛에 팔려가는 대신 죽음을 선택한다.

곰치의 아내 구포댁은 향토적인 극의 배경에 걸맞게 구수한 입담과 속담을 재치있게 구사하는 흥 많은 여인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곰치를 따라 아들이 바다로 나가는 순간 “저놈이 그물만 지고 나서면 가슴이 섉뚝뚝하니 미치겠어!”라며 불안에 휩싸인다. 곰치 부자가 바다로 나간 뒤 구포댁은 수신님에게 세 아들들을 잃은 것을 자기 팔자 탓으로 돌리며, 도삼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어촌 마을의 토착 신앙과 무속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구포댁이 자식들의 죽음을 어미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한국 어머니의 전통적인 모성관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어부 집안에 빈번히 일어나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기 가정에 반복되는 재난을 상기하고, 이번 아들만은 꼭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원은 결국 아들의 실종으로,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 갓난애마저 어미 손으로 죽음의 바다로 띄워 보내는 비극적 결말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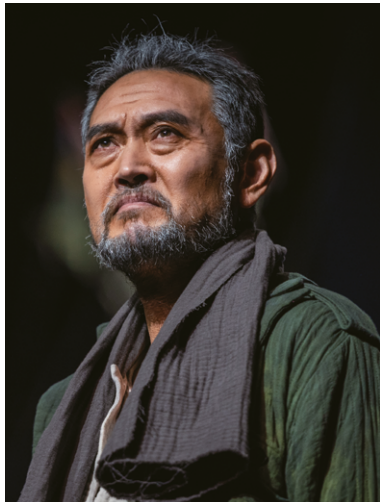
도삼의 죽음을 알고 난 후 그녀는 슬픔과 비탄 끝에 실성하여 바닷가 뚝을 헤매다가 ‘머리를 산발하고 생모시 저고리를 입은’ 도삼의 혼령을 만난다. 어미가 해주지 않은 수의를 입고 실실 웃다가 그냥 가버린 도삼의 혼령 이미지는 구포댁의 질은 죄책감과 회한을 암시한다. 구포댁은 갓난애가 열 살만 되면 그물 치는 어부로 만들 거라는 곰치의 말을 듣자 갓난애를 업고 뛰쳐나간다. 그리곤 갓난 아들을 물에 가서 살라고, 폭풍우 치는 밤바다로 띄워 보내고 만다. 그녀의 비극적 선택은 실성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엔 깊은 심리적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구포댁은 과거에 일어났던 세 아들의 반복적인 죽음에 이어 도삼의 죽음이란 현재, 곧 아들들의 연쇄적 죽음이란 사건과 맞닥뜨린다. 아들들의 반복되는 죽음이라는, 자기 삶에 드리운 운명의 순환적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다. 아들-남자는 바다로 나가야 하고, 결국 바다에서 죽을 운명이란 것이 네 번째 아들의 죽음 이후 얻은 그녀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왜 또 아들을 낳았던가, 비통하게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아들 갓난쟁이를 물으로 보낸다고 배에 태워 띄운 것이다. 이 장면의 구포댁은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바다에 띄우는 신화 속 바리데기 모친이나 모세의 어머니처럼 신화 속 어머니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신화에선 바다가 아기에게 삶을 주었지만, 이 극에선 모성을 통해 파괴적인 우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2021년의 <만선>과 현재적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선>은 시대성을 짙게 드러내고 있기에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다소 낡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적 해석과 연출력에 따라선 극 자체에 내재된 보편성과 작품성을 감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작품이다. 물론 세심하게 읽어보면 잘 짜여진 갈등구조와 인과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허점도 다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구포덕에게 갓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도삼이 실종된 후에야 제시된다. 또 이미 세 아들을 잃은 과거사라든지, 도삼이 바다로 나갈 때마다 불안에 시달린다는 구포덕의 한과 비통한 심정은 복선으로 처리되지 않아 즉흥적 제시로 보이기도 한다.

196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과 인물상이 짙게 투영된 <만선>을 2021년의 무대 위에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어떻게 시의성과 보편성을 부여할 것인가? 아마도 이번 공연에서 제작진이 역점을 둔 바가 이 점일 것이다. 우선 윤색본에서 크게 달라진 점을 보면 곰치의 배만 돌아오지 않아 무당을 불러 점을 치는 장면이 프롤로그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어촌의 무속적 세계관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곰치네 일가에 드리운 운명의 아이러니를 암시하는 듯 보인다. 또 술술이를 남성의 횡포, 운명과 맞서 싸우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성격화하여 현대성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에필로그에는 그물을 손질하는 곰치와 그에게 그물을 집어던지는 구포덕의 장면을 배치하여, 이 모든 불행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삶, 곰치의 어부로서의 집념, 그물처럼 씩씩진 삶의 굴레를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침묵 속에 그물을 뒤집어쓴 곰치의 이미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꿈의 좌절, 그럼에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는 오늘의 서민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무대 이태섭

무대는 사실적인 묘사보다
작품이 담고 있는 상황에 좀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바닷가 방파제 밑에 웅크리고 있는 곰치의 엉성한 양철집은
곧 밀려올 거대한 파도 앞에 간신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의 물결 앞에
과거의 인간적인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은유라고 볼 수 있다.
바다로 부터 몰려오는 비와 바람은 남아있는 곰치의
마지막 의지를 무너트리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의상 최원

의상디자인의 큰 흐름은 운명과 인간의 의지가 교차하는
당대의 어촌마을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자료보다 계층이나 빈부격차를 더욱 강조하여,
도망칠 수 없이 죄어오는 가난의 사슬을 우리의 은유적인 무대에
어우러지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젊은 세대인 슬슬이와 연철, 도삼에게는 생기있는 채도를 주어
그들의 사랑과 생명이 사라진 이후에는 무대전체의 색도 흐름도 내려져버리는
비극이 도드라지게 설정해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사라진 무대에 남은 캐릭터들은 비바람치는 바다에,
가난과 운명에, 그래도 꺾이고 싶지 않은 처연한 의지에
한없이 젖어만 갑니다.





<div><div></div>작</div> <div>천승세 Cheon Seung-se</div> <div>프로필 5페이지</div>	
<div><div></div>연출</div> <div>심재찬 Sim Jae-chan</div> <div>프로필 7페이지</div>	
<div><div></div>윤색</div> <div>윤미현 Yun Mi-hyun</div> <div>연극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목선><텍사스고모>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철수의 난><땃발길러> 외 수상 2019 제9회 부산희곡상 2019 제55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2019 제10회 두산연강예술상 2017 제4회 ASAC 희곡공모 대상 2016 제37회 서울연극제 희곡상 2016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대통령상</div>	
<div><div></div>무대</div> <div>이태섭 Lee Tae-sup</div> <div>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갈릴레이의 생애><오슬로> <엘렉트라><갈매기><리어왕><이영녀><리처드2세> 외 오페라 <1945><가면무도회> 외 창극 <심청가><산불><장화홍련> 외 수상 2021 제31회 이해랑연극상 2018 제55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05 제42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2005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최우수 무대미술상 2000 제6회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의상상 1996 제1회 무용비평가상 특별상</div>	
<div><div></div>조명</div> <div>신호 Shin Ho</div> <div>연극 <단테 신곡-지옥편><너의 곁에 있을게><신의 아그네스> <스카펫><리진><빌미><궁·장녹수전> 외 뮤지컬 <광화문연가><썸씽로튼><도리안 그레이><신과 함께> <뿌리 깊은 나무> 외 무용 <감괘><NOT><라벨과 스트라빈스키> 외 수상 2020 한국무용협회 예술대상 무대예술상 2019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 2015 더 뮤지컬 어워드 조명상 2014 서울연극협회 올해의 스태프상</div>	
<div><div></div>의상</div> <div>최원 Choi One</div> <div>연극 <정의의 사람들><12인의 성난 사람들><후회하는 자들> <고도를 기다리며><고독한 목록><이방인> <경남 창녕군 길곡면><1945><날보러와요><별무리> 외 무용 <더 룩> 외 창극 <오르페오전><몽유도원도> 외 오페라 <나비부인><돈 지오반니><마술피리> 외</div>	

<div><div></div>음악</div> <div>김철환 Kim Chul-hwan</div> <div>연극 <자기 앞의 생><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신의 아그네스> <돼지우리><이른 봄 늦은 겨울><3월의 눈>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벽속의 요정><해변의 카프카> <열하일기 만보><꿈속의 꿈><엄마를 부탁해> 외 수상 2007 서울무용제 음악상 2004 서울무용제 음악상</div>	
---	--

<div><div></div>음향</div> <div>안세운 An Se-woon</div> <div>연극 <소년이 그랬다><행릿><동양극장 2020><크리스마스캐롤> <노래하는 새 싸꾸><버자이너 모놀로그> 외 페스티벌 <MMC 페스티벌><DownFall festival 2019> 외 기타 <언성(UN Sung)><한·중·일 문화 동계 올림픽 공연> 외</div>	
--	--

<div><div></div>분장</div> <div>이동민 Lee Dong-min</div> <div>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후회하는 자들><명왕성에서> <함익><갈릴레이의 생애><빌미><호신술><오슬로>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외 수상 2016 Aisa 美 Awards Best stage makeup artist award</div>	
--	--

<div><div></div>소품</div> <div>정윤정 Jung Yun-jung</div> <div>연극 <극장 앞 독립군><물고기인간><지하철 1호선> <유랑 억척어멈><소><옥상 발 고추는 왜><왕위주장자들> <비BEA><함익> 외 오페라 <1945><베르테르><맥베드> 외 창극 <마당을 나온 암탉> 외</div>	
---	--

<div><div></div>조연출</div> <div>이지혜 Lee Ji-hye</div> <div>연출 퍼포논문 <셀프-리서치그래피> 무대감독 <죽음의집><아웃 오브 러브> 외</div>	
--	--

<div><div></div>출연</div>	
<div><div></div>김재건</div> <div>범쇠</div>	
<div><div></div>정상철</div> <div>임제순</div>	
<div><div></div>김명수</div> <div>곰치</div>	
<div><div></div>정경순</div> <div>구포택</div>	
<div><div></div>김종칠</div> <div>성삼</div>	
<div><div></div>조주경</div> <div>무당, 동네아낙</div>	
<div><div></div>김경숙</div> <div>동네아낙</div>	
<div><div></div>정나진</div> <div>마을어부</div>	
<div><div></div>이상홍</div> <div>도삼</div>	
<div><div></div>김명기</div> <div>순경, 마을어부</div>	
<div><div></div>송석근</div> <div>연철</div>	
<div><div></div>김예림</div> <div>슬슬이</div>	
<div><div></div>이소연</div> <div>뱃노래 소리꾼</div>	

<div><div></div>스태프</div>	
<div><div></div>작</div> <div>천승세</div>	
<div><div></div>연출</div> <div>심재찬</div>	
<div><div></div>윤색</div> <div>윤미현</div>	
<div><div></div>무대</div> <div>이태섭</div>	
<div><div></div>조명</div> <div>신호</div>	
<div><div></div>의상</div> <div>최원</div>	
<div><div></div>음악</div> <div>김철환</div>	
<div><div></div>음향</div> <div>안세운</div>	
<div><div></div>분장</div> <div>이동민</div>	
<div><div></div>소품</div> <div>정윤정</div>	
<div><div></div>조연출</div> <div>이지혜</div>	
<div><div></div>무대디자인</div> <div>보 박은혜</div>	
<div><div></div>의상디자인</div> <div>보 방마리</div>	

<div><div></div>기술감독</div> <div>김무석</div>	
<div><div></div>무대감독</div> <div>신승호</div>	
<div><div></div>무대제작감독</div> <div>이승수</div>	
<div><div></div>조명감독</div> <div>오퍼레이터 김용주</div>	
<div><div></div>음향감독</div> <div>오퍼레이터 장도희</div>	
<div><div></div>의상감독</div> <div>박지수</div>	

<div><div></div>무대진행</div> <div>최정환 최성관 김민주 차지민</div>	
<div><div></div>의상진행</div> <div>심새늘 신은혜</div>	
<div><div></div>분장진행</div> <div>이수연 김효정</div>	

<div><div></div>무대제작</div> <div>온스테이지</div>	
<div><div></div>의상제작</div> <div>포도필름</div>	
<div><div></div>소품제작</div> <div>예술공장</div>	
<div><div></div>조명장비임차</div> <div>트리거 컴퍼니</div>	

<div><div></div>조명프로그래머</div> <div>백하림</div>	
<div><div></div>조명팀</div> <div>전규상 김경호 이상민 양상모 김도형 이재문</div>	
<div><div></div>음향팀</div> <div>김학준 박상준</div>	

<div><div></div>영문자막 번역</div> <div>조용경</div>	
<div><div></div>영문자막 제작</div> <div>윤용 김다애</div>	

<div><div></div>홍보</div> <div>마케팅 총괄 정용성</div>	
<div><div></div>홍보</div> <div>이정현 최윤영</div>	
<div><div></div>마케팅</div> <div>변정원</div>	
<div><div></div>온라인마케팅</div> <div>오지수 조영채</div>	
<div><div></div>후원</div> <div>이승이</div>	
<div><div></div>청년인턴</div> <div>노소연</div>	
<div><div></div>서포터즈</div> <div>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div>	
<div><div></div>메인디자인</div> <div>페이퍼프레스</div>	
<div><div></div>응용디자인</div> <div>스튜디오 붐빔</div>	
<div><div></div>홍보사진</div> <div>그린비</div>	
<div><div></div>홍보영상</div> <div>602 STUDIO</div>	
<div><div></div>연습</div> <div>공연사진 이강물</div>	
<div><div></div>옥외광고</div> <div>애니애드</div>	
<div><div></div>홍보물인쇄</div> <div>인타임</div>	

<div><div></div>티켓</div> <div>김보배</div>	
<div><div></div>대표안내원</div> <div>김경은 채수환</div>	
<div><div></div>하우스매니저</div> <div>이기쁨</div>	
<div><div></div>하우스안내원</div> <div>이지은 정해룡 임예은 박다연 박선준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고정운 채지성 김소희 안수진 고찬하 정여름 하라영 한현지 김가민 김현오 이호정</div>	

<div><div></div>프로그램 디자인</div> <div>스튜디오 붐빔</div>	
<div><div></div>프로그램 인쇄</div> <div>미림아트</div>	

<div><div></div>공연영상제작</div> <div>영상작업공간 틀어</div>	
<div><div></div>기획</div> <div>제작 총괄 김옥경</div>	
<div><div></div>프로듀서</div> <div>박소영</div>	
<div><div></div>제작진행</div> <div>김다애</div>	
<div><div></div>제작</div> <div>(재)국립극단</div>	
<div><div></div>예술감독</div> <div>김광보</div>	
<div><div></div>사무국장</div> <div>오현실</div>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담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 김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새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욱 시설·응역·공사 박예원 인사·복무·복지 후생 |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 이지연 아카이브 | 홍혜림 청년인턴 | 박설아 연수단원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김훈일 윤정민 프로듀서 | 박소연 연수단원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이정현 홍보 |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송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호진 티켓 |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 노소연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 홍영진 박지수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개발 |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2021년



강현우

〈파우스트 엔딩〉
〈사랑 II〉
[창작공감: 연출]

고애리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로드킬 인 더 씨어터〉

국립극단과



권은혜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작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명기

〈X의 비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김보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엔젤스 인 아메리카〉

김세환

〈파우스트 엔딩〉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위트〉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김예림

〈X의 비극〉
〈사랑 II〉
〈만선〉



박용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SWEAT 스위트〉
〈엔젤스 인 아메리카〉



송석근

〈X의 비극〉
〈SWEAT 스위트〉
〈만선〉

이상홍

〈X의 비극〉
〈만선〉
〈로드킬 인 더 씨어터〉

문예주

〈X의 비극〉
〈SWEAT 스위트〉
〈로드킬 인 더 씨어터〉

박소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사랑 II〉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이원준

〈파우스트 엔딩〉
[창작공감: 연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이유진

〈X의 비극〉
〈사랑 II〉
〈로드킬 인 더 씨어터〉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매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 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 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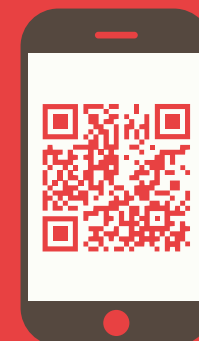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터파크
명동 북앤샵

02-6004-7391

- 도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BISTRO 수방.J

02-3789-8679

- 호텔28 레스토랑 '비스트로 수방J' 10% 할인



오설록

티하우스 명동점

02-774-5460

- 전체 메뉴 10% 할인

제휴처별 상세정보는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휴문의 02-3279-2278 www.ntck.or.kr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로드킬 인더씨어터

작·연출. 구자혜

무대·조명 여신동
의상 우영주
음악 이지구 안마루
사운드 목소
분장 장경숙
수어통역 김홍남 최황순

출연
고애리 문예주
박경구 박소연
백우람 성수연
이리 이상훈
이유진 전박찬
최순진
연주
안마루

2021.10.22.-11.14.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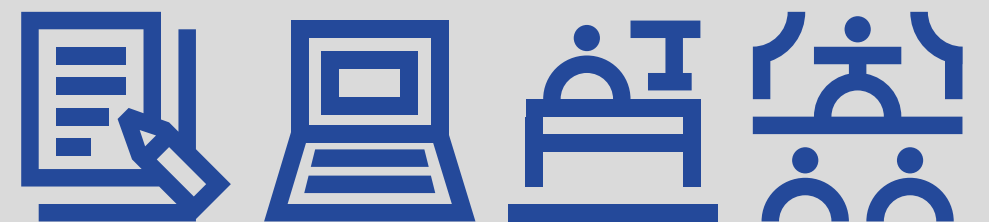
SHINSEGAE
푸른하늘

국립극단 1644-2003 | 인더파크 1544-1555

창작공감 ∞ 희곡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희곡을 찾습니다!

bb 창작희곡과 작가들을
만나는 열린 창구 99



STEP 1. 온라인 투고

STEP 2.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STEP 3. 쇼케이스 제작

- 경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 희곡은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합니다.
- 낭독회와 쇼케이스는 접수된 작품 중 선정작에 한해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립극단 작품개발팀 gonggam_p@ntck.or.kr



국립극단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웃어라! 배가 터지는 만선으로 올 것이니!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